창 세 기 Genesis

1. 핵심

창세기 50장을 네 단어로 요약해보자

(창조1-2장**) - (타락**3-5장**) - (심판**6-11장**) - (구원**12-50장**)**

2. 배경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제공한다. 천지만물, 인류, 안식일, 결혼, 죄, 살인, 구원, 문화, 열국, 언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는 크게 원시역사(1-11장)와 족장의 역사(12-50장)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원시역사(1-11장)는 창조, 타락, 심판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족장의 역사(12-50장)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 개인과 사회와 인류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암울하고 혼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3. 개요

- 1-2장 창조
- 3-5장 타락
- 6-11장 심판
- 12-50장 구원 (12-25 아브라함 / 26-27 이삭 / 28-36 야곱 / 37—50 요셉)

4. 본문

1) 창조 (1-2장)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한다. 1장은 우주를 중심으로 한 창조 기사(1:1-2:3)이고,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 기사이다(2:4-25).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1).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그것은 "무에서의 창조"(creation ex nihilo)다. 창조의 최초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1:1-2). 이제 최초의 창조역사는 3절에서부터 서서히 질서를 잡아가고 윤곽을 드러내는 6일 창조로 발전한다. 처음 3일은 혼돈된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고(빛, 궁창, 물, 땅, 바다), 나중 3일은 그 형태 안에 내용물을 충만히 채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히 6일 창조에 나타나는 하루(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하루를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으로 보는 관점, 지질학적 한 시대로 보는 관점, 하나의 구조적인 틀로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인간은 그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임을 보여준다. 2장 초두(1-3절)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제7일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안식(재창조/구속)에 대한 예표이다.

2장 하반절(4-25절)은 에덴동산을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한 기사다. 인간(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땅의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신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창조원리에 속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어야 한다.

2) 타락 (3-5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3:1a). 3장은 뱀(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인간의 타락은 네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3:1-6). 첫째,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1절)고 의심을 불

러 일으킨다. 둘째, 그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신의 단계로 유혹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2:17)는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3:3)로 둔갑하는 불신의 단계에 다다른다. 셋째는 의심과 왜곡의 단계를 거쳐 부인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4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 넷째는 결국 불순종을 행동하게 만든다(6절).

이제 타락의 무서운 결과와 형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3:7-19)? 첫째, 수치심(7절)과 두려움(8절)으로 나타난다. 둘째,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12절).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형벌로 나타난다(14-19절).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모습(3:21)으로 드러난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독립을 선포하는 교만이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

4장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어느날 농사를 짓고 사는 형 가인이 목축을 하며 사는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후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 거기서 성을 쌓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시작했다. 훗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신다. 5장은 두 번째 톨레돗으로 아담의 계보(톨레돗)를 기록한다. 아담과 셋을 통해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를 기록한다. 여기서 각 이름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들이다. 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의 불순종은 가인에게서 살인으로, 그 살인은 7대손 라멕을 거치면서 무자비한 살해와 폭력으로 발전한다. 당연히 죄에 대한 강화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강화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로 줄어들고 급기야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아 2:15)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3) 심판 (6-11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6:5). 6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하지만 아담의 10대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마침내 하나님은 죄악이 창궐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7장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주야에 걸쳐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 결과 방주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기식하는 동물은 다 죽었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에 넘쳤더라고 기록한다. 8장은 노아가 601세가 되는 1월 1일에 땅 위의 물이 걷히자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9장은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상징되는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인류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는다.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한다. 이들은 열국의 조상이 된다.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평지에 성과 탑을 쌓고 새로운 문명 즉 바벨문명을 건설했다. 특히 그들이 쌓은 바벨탑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이름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명령에 순응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와 명령을 역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한마디로 바벨문명은 홍수 이전의 가인의 문명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역적인 문명이었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의 문명이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결과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오늘날의 각 족속과 방언으로 나뉘게 되었다(11:8-9). 11장 후반부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의 죽음으로 원시역사(1-11장)는 끝이 나고 아브람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

4) 구원(12-50장)

데라의 죽음으로 원시역사(1-11장)는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된다. 족장의 역사(12-50장)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한다.

(1) 아브라함(12-25:1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12:1). 인간의 타락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땅, 자손, 복에 대한 세가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12:4).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난다. 13장은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잠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아브람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진다. 아브람의 양보로 롯은 물이 풍족한 소돔 땅을 택하여 동쪽으로 떠난다. 육신적인 롯에 반하여 아

브람은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땅의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재차 약속하신다(13:14-17). 14장은 소돔왕의 연합군 5개국과 엘람왕의 연합군 4개국 간의 전쟁에서 소돔이 패함으로 소돔에 살던 롯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아브람은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한다. 아브람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댁을 만나서 그에게서 축복을 받고 아브람은 멜기세댁에게 십일조를 바친다. 멜기세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히7:1-3).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셨다.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15:6), 해질녘에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셨다(15:12-21).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잠시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한다. 믿음은 선택이다. 눈에 보이는 힘든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과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래는 할례와 더불어 열국의 아비(아브라함)와 어미(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로부터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는다. 한편 그 천사들은 악한 소돔을 심판하러 떠났고,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19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소돔에서 탈출한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서 모압과 벤암미를 출산하여 각각 그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지난번 애굽에서처럼(창 12장)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기를 극복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은 때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창 16장).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지만, 22장에서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의 숫양은 여호와의 산에 예비한 여호와이레의 선물로써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3장부터는 결론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가나안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서 장

사지낸다. 24장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하란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될 사람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보낸다.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머니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는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의 삶은 순례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었다(히 11:13-14).

(2) 이삭(25:19-28: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25:19). 이삭의 족보(톨레돗)는 창세기에 나타난 열 한 번의 톨레돗 중에서 여덟 번째에 등장한다. 이 톨레돗의 시작과 함께 나오는 이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단락의 시작을 나타내며 그의 죽음으로 이 단락이 끝나는 문학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삭의 족보는 그의 아들 야곱을 소개하는 족보이다. 25장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형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 자신의 족보로 구성되었다. 이삭은 60세에 자식을 낳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25:23)는 약속과 함께 에서와 함께 쌍둥이 동생 야곱을 낳는다. 26장은 이삭이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이주한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땅, 자손, 복)을 그에게도 하셨다. 또한 그는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26:6-11). 나아가 그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때마다 그 땅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다(26:12-25).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26:26-31). 이삭의 생애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평화의 사람이었고(롬12:18),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27장은 말년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 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을 좇아 에서를 축복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만다. 28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진심으로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밧단아람의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축복하여 보낸다. 그렇게 야곱을 떠나보낸 아버지 이삭은 끝내 야곱의 귀환을 헤브론에서 목도하고 180세에 여생을 마친다. 이삭의 여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술회한다(히 11;20).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순종의 삶이 특징이었다. 그의 순종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 했던 아들 야곱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준다.

(3) 야곱(28:10-36장)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28:10).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주하는 길목에서 야곱은 예기치 않는 만남을 갖는다. 28장 벧엘에서 뜻밖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야곱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29장에서 야곱은 마침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의 두 딸(레아와 라헬)과 결혼한다. 레아에게서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얻는다. 30장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며 경쟁적으로 자식들을 낳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형성한다. 야곱은 아내들을 위한 14년 동안의 봉사기간을 마치고 귀향의 뜻을 밝히지만 라반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반이 다시 품삯을 약속하며 야곱을 6년 동안 더 붙드는 바람에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된다. 그 사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부가 되었다.

31장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자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벧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귀향을 결행한다. 결국 사흘만에 라반에게 들키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귀향을 막지 말라고 경고한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미스바의 언약을 맺고 두 딸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헤어진다. 32장은 귀향의 길목에서 야곱은 또 다른 만남을 마주했다. 그의 형 에서였다(32:6). 마침내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통해 얍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벧엘의 언약(28:13-15)을 성취된다. 33장에서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진정으로 화해한다. 마침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의 숙곳에 정착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한다.

34장은 히위족속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써서 그곳 사람들을 대학살 한다. 야곱은 이 일에 크게 분노하며 자식들을 나무랬다.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계시하시자 야곱은 가족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한다. 두번째 벧엘로 올라가는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탈취하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믿고 의지하는 새사람이었다. 벧엘에서 에브랏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잃지만 그녀의 산고 끝에 베냐민을 얻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에서 뵙고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은 족장의 지위를 계승한다. 36장에는 세일에 거하는 형 에서 곧 에돔의 족보와 세일의 자손들과 에돔 왕들의 목록이 나온다. 우리는 자아가 강하고 이기적이고 고집 센 야곱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무엇보다 밧단아람의 라반과 얍복강가의 에서를 사용하셔서 그의 고집과 이기심과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기만 하다.

(4) 요셉(37-50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37:2). 이제 요셉이야기의 서론으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열 한번 째의 마지막 족보(톨레돗)가 등장한다. 야곱의 족보는 이어서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로 야곱은 그를 편애하여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 키움으로 다른 형제들의 질시를 받았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여 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았다. 결국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형님들에 의해 세겜에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다.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그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룻 4:18-22).

39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의 고난편을 다룬다. 39장은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며 또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봄으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다. 그때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만 요셉이 거절하자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보냈다.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의 해석대로 술관원장은 복직되고 떡관원장은 사형당한다. 41장에서는 2년이 지난 후에 술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다. 긴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다.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은 칠년 풍년이 든 다음에 칠년간 흉년이 들 때 미리 풍년 때에 비축한 오분의 일의 곡식으로 애굽과 온 지경에 양식을 공급하게 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바로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총리가 되었다.

4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 장면을 다룬다. 42장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다. 요셉은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차리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운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서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양식을 후하게 담아준다. 43장은 야곱이 어떻게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43:14)는 고백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2차 양식을 구매하는 길에 베냐민을 함께 보낸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며 기뻐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준다. 44-45장은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 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면서 형들을 시험해 본다. 그때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애절한 사랑과 중보를 보면서 형님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대성통곡한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45:3)하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극적인 상봉을 한다. 두려움에 떠는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45:8a)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그분의 섭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돌려보낸다.

46-47장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극적인 상봉을 한 후 고센 땅에 정착한다. 야곱은 고센에서 17년을 더 살면서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고 49장은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한 후 147세에 숨을 거둔다. 마지막 50장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치러드리고 요셉도 110세에 애굽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요셉은 그들의 후손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골을 가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함으로 눈을 감았다(50:24-26).

신명기의 묵상과 질문(Q & A)

1.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생각해 보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었다. 온 세상이 타락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사는 남은 자인가(롬 11:5)?

2.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증인들이었다. 비록 자신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녹록치 않은 삶을 살다 갔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히 11:1)것임을 확신하는가?